

현대 역사학의 동향과 전망*

박 은 구**

목 차

1. 전통적 역사학에 대한 비판
2. 현대 역사학의 동향
 - (1) 마르크스주의 역사해석
 - (2) 아날학파의 역사이론
3. 반성과 전망

1. 전통적 역사학에 대한 비판

양차 세계대전으로 점철된 20세기 전반기 동안 역사학은 그 운명의 극적인 등락을 경험하였다. 전통적 역사학은 20세기에 접어들 즈음 매우 높은 수준의 학문적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자부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 랑케(L. Ranke, 1795-1896)와 그 추종자들인 역사주의(historicism) 사가들이 이룩했던 전통적인 역사주의 사학의 유산이었다. 랑케류의 역사주의 사학은 먼저 자연과 역사를 구분하여 역사학의 고유한 영역과 자율성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정밀한 사료비판에 초점을 맞춘 사료학(Quellenkunde)과 엄격한 금욕주의에 입각한 주관의 배제를 통해서 과거 사실들의 객관적 재구성 가능성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역사가의 임무는 과거 사실을 '원래 있었던 그대로(wie es eigentlich gewesen ist)' 복원하는 일이며, 역사가란 '원래

* 본 논문은 1997년 10월 30일 인문과학연구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것임.

** 본교 사학과 교수

있었던 그대로 복원된 과거'가 들려주는 이야기 그 자체라는 것이다.

분명 역사주의 사학은 “지배계층의 교양으로서의 과거사 지식”이라는 역사학에 대한 종래의 일반 인식은 물론, 계몽주의적 진보사관과 헤겔류의 관념주의적 역사관 모두로부터 벗어나서 역사학적 인식의 깊이와 넓이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 개체주의적 역사인식, 사실주의적 사료 해석, 일회적 과거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의 믿음, 직관에 의한 보편 인식, 사물의 가변성과 그것에 내재하는 본성적 요소의 전개에 대한 소박한 낙관, 만유개신론적(pantheism) 사물관 그리고 주의주의(voluntarism) 성향 등의 역사주의적 방법론이야말로, 인간과 역사에 대한 합리주의적 자연주의적 해석의 함정이었던 추상적 초월적 합리의 추구를 극복하고, 역사적 실체적 합리를 추구하는 진정한 지적 신조로, 심지어 삶의 원리로, 수용될 정도였다. 마이네케(F. Meinecke)가 역사주의를 ‘종교개혁이후 유럽이 경험한 가장 중요한 정신적 혁명, 내지 인간사에 관한 한 가장 높은 이해의 단계’라고 평가하였던 근거도 이 점에 있었다.

그렇기는 하지마는 우리는 역사주의 사학이 사건중심적 정치사라는 지평에 머물렀으며, 그 정치사적 서술의 기본 단위가 전통적 민족 내지 종교였고, 개체주의적 논리 또한 실제에 있어서 국가주의적 성향의 외투에 지나지 않았음을 잘알고 있다. 랑케 자신의 견해를 들어보기로 하자.

신은 인류의 이념을 여러 민족에게 다양하게 부여하였다. 민족성은 국가를 형성하는 도덕적인 힘이다. 이념의 현상이 민족, 국가, 강국들인 바. 그 원리는 대중의 무의식적 행동 속에 있으나, 무엇보다도 그것은 위대한 개인 내지 진정한 정치가의 행동과 사고 속에 집중되어 있다. 국가의 근원은 신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모든 의미있는 국가들은 특수성이라는 고유한 경향으로 충만해 있다.

이같이 랑케는 국가의 본질을 신성한 무엇으로, 그리고 그것을 신이 만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완전한 형태의 인간 삶의 사회적 단위로 간주했다. 더욱이 이는 1830년대 이후 서유럽 제국들이 경쟁적으로 정치적 국제적 사건을 중심으로 한 ‘국가 문서’들을 공개함으로써 야기된 특수한 사료 상황, 및 프랑스혁명 이후 대두되고 있던 민족주의가 산업혁명의 진전과 더불어 그 물질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특히 1871년의 독일 통일이라는 정치적 상황 등과 맞물려, 일련의 역사주의적 역사 서술을 ‘국가경건성 확보’라는 정치적 목표를 향해 매진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통치집단과 과거에 대한 비판없는 경건’이라는 반성과 더불어 역사주의 사학의 ‘객관성’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양차 세계대전과 함께 제기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 사실 전쟁발발

역사학자들의 대부분이 국가주의적 경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하여 '역사학은 그것으로부터 아무 것도 배울 것이 없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 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역설적인 자조가 제기될 정도였다. 그렇기는 하지마는 전통적 역사학 특히 역사주의적 신조의 설득력 상실이 역사학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나아가지는 전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진지한 역사학도들로 하여금 '보다 과학적인 역사학'을 추구하도록 하는 치열한 계기가 되었다. 필자의 이해로는 전통적 역사학에 대한 광범위한 위기감과 역사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신뢰 및 낙관적 전망에의 회복 추구가 바로 현대 역사학의 지적 토양이다.

2. 현대 역사학의 동향

현대의 다양한 역사학적 모색은 무엇보다도 역사주의 사론에 함의되었던 주관성과 관념성에 대한 집중적 비판에 그 기반이 있었다. 먼저 역사학적 인식의 주관성에 대한 논의부터 일별해 두기로 하자. 따지고 보면 역사주의자들이 주장하였던 과거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란, 설령 그것이 아무리 엄격한 사료비판에 입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객관성에 대한 현재적 주관적 인식에 다름아닐 것이다. 이에 크로체(B.Croce)와 콜링우드(R.G.Collinghood) 등은 '죽은 과거 사실들의 단순한 집합으로서의 역사'를 부정하고, 문화과학 내지 정신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의 성격을 변론하였다. '모든(참다운)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며 또한 사상의 역사이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으며, 카이(E.H.Carr)는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끈임없는 대화이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베커(C.Becker) 및 베어드(C.Beard)와 같은 상대주의자들과 함께, '사실의 텍스트(text)와 컨텍스트(context)의 분리'를 강조하였던 해체주의 역사가 라카프라(D.Lacpra) 등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던, 사실 인식의 주관성 내지 부분성의 문제 심지어 역사 사실의 허구성의 문제는 전통적인 문헌고증적 역사방법론의 한계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이들에 의하면 역사가의 주관은 배제되어야 할 무엇이 아니라 풍요로와져야 할 무엇이며, 역사학의 생명력도 사실성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것의 현재성 내지 비판성에 있었다. 명백히 이들의 문제제기는 역사학적 인식의 객관성에 관한 우리들의 이해에 깊이와 넓이를 더해 주었다. 그리하여 역사학적 지식의 기본 성격도 '끊임없이 다시 쓰여져야 할 일종의 문화과학'으로 재정립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의해 제기된 '객관적 과거 사실'의 개념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 직업적 역사가들의 실제 작업에 미친 충격에 관한 한, 오늘날 해석적 비판(Hermeneutics)을 포함한 전통적인 사료비판의 방법과

미친 충격에 관한 한, 오늘날 해석적 비판(Hermeneutics)을 포함한 전통적인 사료비판의 방법과 더불어 지나칠 정도로 구사되고 있는 역사서술의 계량화 내지 통계화 추세가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듯이, 아직은 '찾잔 속의 태풍'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듯하다.

(1) 마르크스주의 역사해석

한편 정치, 사건, 개인 등을 중심으로 했던 전통적 역사학의 관념성을 극복하려던 비판적 모색은 사실들에 대한 경험과학적 수집과 분석에 입각하여, 경제 내지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서술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역사주의 사론에 대한 간세기 즈음의 일련의 비판적 모색이 찾은 확실한 한 대안이 마르크스주의 역사해석이었던 것이다. 이같은 지적 동향의 저변에는 민족주의와 자본주의의 제휴 그리고 그것이 초래한 파국적 세계대전 등의 체험에 따른 나름의 치열한 반성, 즉 개인은 언제나 구조적 상황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전통적 역사가들의 신조였던 '자유' '개인' 등의 이상주의적 개념이 비사회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 유리된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였다는 자각이 이를 나위없이 두텁게 깔려 있었던 것 같다. 먼저 마르크스(K. Marx, 1818-83) 자신의 주장을 듣는 것이 이같은 동향에 접근하는 관건일 것이다. 1859년에 출간된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일정한 생산관계의 일부가 되며, 이 생산관계의 총체가 그 사회의 경제구조이고, 이 경제구조 위에 법적 정치적 상부구조가 구성된다. 물질적 생산양식이 사회적 정치적 및 정신적 구조를 결정한다.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 아니라, 역으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한다. 사회의 물질적 생산 관계란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면 구생산관계에 대립하게 되고, 구생산관계는 질곡으로 변하며, 마침내 사회적 혁명의 시기가 도래한다. 경제적 토대의 변화와 더불어 모든 상부구조도 변화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아 생산양식은 대략 다음의 네 가지이다. 즉 아시아적, 고대 노예적, 중세 봉건적, 근대 부르조아적 생산양식이 그것이다. 부르조아적 생산양식은 생산의 사회적 발전단계에 있어서 최종적 계급대립의 형태이다.

변증법적 유물사관이라 불리게 된 그의 역사이론은 간략히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1) 역사적 변화의 근본 힘은 물질적 생산력이며, 이는 발전단계에 따라 일정한 생산관계 내지 생산양식을 형성하고, 이 생산관계의 총체가 곧 경제구조이다. (2) 한 사회의 경제구조는 그것에 상응하는 법적 정치적 사회적 정신적 상부구조를 구성한다. 다시 말해서 생산수단을 장악한 경제

다. (3) 따라서 경제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그것에 상응하는 사회계급들 간의 대립을 초래하며, 생산양식의 모순에 근거한 이 계급적 대립은 중국에 가서 반드시 사회혁명을 초래한다. (4) 모든 현존 사회의 역사는 생산력과 생산수단이 변증법적으로 전개된 계급투쟁의 역사로서, 부르조아 계급이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오늘날의 자본제 사회는 결국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로 종식되며, 그리하여 마침내 계급없는 사회가 도래한다.

그러나 경제적 결정론에 입각한 마르크스의 이같은 역사 발전단계론은 금세기 초엽,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한 학문적 지평을 넘어 구소련 공산당 등의 실천적 정치적 강령으로 확립되었다. 그리하여 그것이 이념적 도덕성만을 앞세운 나머지 본래의 이론적 탄력성조차 상실함으로써 일종의 교조적 지배이데올로기화 한 것은 차라리 ‘필연적’ 수순에 가깝다. 그렇기는 하지마는 형해화한 교조주의 내지 천박한 도식주의로 전락한 이 결정론적 역사해석의 틀에 새로운 생명력을 회복시키려는 다양한 지적 추구 또한 서구 마르크스주의 지식인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역사 발전의 한 영원한 요소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행위와 의지 그리고 이들의 자율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일찍이 1920년대에 루카치, 코르쉬, 안토니오 그람시 등에 의해 가해졌으며, 30년대에는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 등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의해서 이같은 노력이 계승되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해석의 기반이었던 ‘과학적’ 경험주의와 경제적 구조적 결정론에 대한 일련의 재검토가 낳은 역사적 비판적 방법론의 중요성과 인간 및 문화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호르크하이머는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역사적으로 활동하는 인간의 사회 현실 내지 발전 과정은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모든 문화적 과정의 관계들을 이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구조는 종래의 자연과학적 방법으로는 파악될 수 없다. 계급없는 사회가 현실적으로 인간주의적인 의미에서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가져왔는가 오히려 위로부터 관리되는 세계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 더욱이 마르크스는 인간 사이의 관계들 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들도 구제되어야 할 한 관건이라는 점을 간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적 역사해석에 대한 그간의 이론적 비판들을 자신의 실제적 역사서술 작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 역시 등장하였다. 특히 1952년 창간된 < Past and Present > 와 1960년 창간된 < New Left Review > 를 각각의 주된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였던 이른바 문화주의자(culturalist)들과 구조주의자(structuralist)들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흠

던 이른바 문화주의자(culturalist)들과 구조주의자(structuralist)들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홉스보움(E.Hobsbawm), 힐(C.Hill), 힐튼(R.Hilton), 톰슨(E.P.Thompson) 등에 의해 대표되는 문화주의 맑시스트 사가들과 앤더슨(P.Anderson), 네인(T.Naim), 왈러스틴(I.Wallerstein) 등으로 대표되는 구조주의 맑시스트 사가들은 활발한 논쟁과 구체적인 서술 작업을 통해 현대 역사학계 전반에 의미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New Left Review >의 편집을 주도하였던 앤더슨은 < 고대에서 봉건제로의 이행>과 < 절대주의 국가의 계보 > 등의 저작을 통해서 역사발전 단계론과 같은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입지를 고수하면서도, 그간의 비마르크스주의적 역사학 연구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리하여 유럽사 전반의 성격을 국가, 인종,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보다 폭넓은 비교사적 맥락하에서 규정하고자 하였다. 그에 의하면 유물론적 역사해석이라고 해서 완결된 과학이 아니었으며, 국가 내지 계급지배의 다원적 기구 등에 대한 '위로부터의 역사(history from above)'도 '아래로부터의 역사(history from below)' 만큼이나 필수적인 탐구였다. 예를 들어 그는 봉건제를 농노제, 토지 경작민에 대한 사적 지배, 경제외적 강제, 자유민들 간의 가신관계, 그리고 분권적 지배체제 등이 복합적으로 구조화된 총체로 파악하였다. 종교, 법률, 국가, 관습, 혈족 등의 상부구조가 봉건적 생산양식의 성격을 규정하는 구성적 계기라는 것이다. 전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진정한 성격은 그 정치적 법적 이데올로기적 구조에 의하지 않고는 정의될 수 없다라는 그의 지적에서 우리는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자와 교조적 마르크스주의자들 간에 가로놓인 엄청난 거리와 함께 현대 마르크스주의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동시에 접할 수 있다. 그간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해석이 몰역사적 무비판적 보편주의에 함몰하였다는 반성에 입각하여 거시적 이론과 구체적 역사를 접목 시키려고 하는 시도 그 자체가 적지않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리라.

한편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문화주의 맑시스트 사가인 톰슨(1924-1993)은 홉스보움, 힐 등과 함께 영국 공산당 내의 '역사가 그룹(Historians' Group)'에 속하면서, 오늘날도 역사학계 전반의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의 하나가 된 < Past and Present >의 창간에 깊이 관여하였다. 그러나 그는 1956년 소련의 헝거리 침공을 계기로 공산당과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 내지 '사회주의적 휴머니즘'이라는 새로운 이념 노선을 주창했을 뿐만 아니라, 1963년 발간과 함께 현대의 고전이 된 <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을 집필하고, 역사 서술의 실제적 작업에 비추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구분하는 등 전문 역사가로서도 탁월한 활동을 하였다.

톰슨의 학문적 주제는 무엇보다도 '그들에 의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쓰여지지는 않은' 민중의 역사, 즉 역사 변화의 능동적 주체적 구성 요소로서의 하층민들의 삶과 경험 그리고 문화

특히 전후 사회사가들에게는, 그가 마르크스주의자인가 또는 비마르크스주의자인가를 막론하고, 거의 주술이 되다시피 한 주제였다. 그러나 톰슨이 제시한 '아래로부터 위로의 역사(history from the bottom up)'는 매우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서 '아래로부터의 역사'는 지배계층 내지 엘리트 중심의 전통적 역사학의 극복이라는 공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두 가지 구별되는 경향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는 과거 민중의 삶과 경험을 고찰하면서도 이로부터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이들은 장기적 구조적 변화만을 강조한 채 정치란 지배적 계급, 인물, 조직 등의 지평에서 수행된다는 통념, 그리고 문화에 관해서도 지배계급의 문화가 곧 사회 전체의 문화이라는 등의 가설을 묵시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리하여 민중들의 삶과 경험을 장기적 구조적 변동(예를 들어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등)이 수반하는 가치없는 기계적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 또는 적응에 실패하는 과정으로 단순하게 취급해 버렸다. 그 결과 민중집단의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identity)은 손쉽게 간과되고 말았다. 이같은 경향은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구조주의 맑시스트들조차 민중을 지식인 집단이 제공하는 이론 내지 노선에 의해 계몽되어야 할 존재로 간주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에 톰슨은 이 점을 문화야말로 대립하는 계급들 간의 상이한 가치들이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투쟁의 장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법률조차 지배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상이한 사회세력들이 각각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종의 전투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다를 하나는 '급진 포퓰리즘(radical populism)'의 경향이 그것이다. 이들은 민중 내지 하층계급의 생활과 투쟁을 고찰함에 있어서, 마치 이들이 '자율적인 문화'를 기적같이 창조하여 지배집단의 가치와 욕망에 대해 성공적으로 저항했던 것처럼 이해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민중계층의 정치적 경험과 문화적 관행들이 보여주는 지배문화에의 적응과 흡수라는 실제적 상황 및 온정주의적(paternalism) 에토스의 끈끈한 형성력 그리고 발전과 쇠퇴,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계급관계의 역동적 과정 등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었다. 이는 하층계급의 공적 경험을 소홀히 하고 사적 경험의 비중만을 과장했을 뿐만 아니라, 민중의 삶을 저항 혹은 투쟁과 같은 정태적인 계급적 정치적 맥락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원래의 구호였던 '아래로부터의 역사'와는 거리가 먼 '아래의 역사(history of the bottom)'에만 머무르고 말았다는 평가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비는 과거의 직조공과 농민뿐만 아니라 과거의 국왕과 귀족들까지 함께 구해내는 일이다. …… 계급이란 마치 그것이 독립적인 실체인양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 주위를 둘러보아 적대계급을 발견하며, 그리고 투쟁을 전개한다는, 그런 따위의 것이 아니다. 계급과 계급의식은 항상 역사과정의 마지막 단계의 것이지 처음 단계의 것이 아니다'라고

다. 계급과 계급의식은 항상 역사과정의 마지막 단계의 것이지 처음 단계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문화주의 맑시스트 사가들이 독보적으로 '아래로부터 위로의 역사(history from the bottom up)'를 추구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톰슨은 그에게 있어서의 민중 즉 노동계급의 실체를 어떻게 규정했을까. 이에 관한 그의 방대한 논의의 의도는 노동계급에 대한 당대의 두 대립적인 견해를 비판하고 그 대안을 찾는 데 있었다. 스탈린주의로 대표되는 천박한 마르크스주의(vulgar Marxism)에 따르면, 노동계급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라는 '구조'의 자동적인 사회적 산물로서, 이들은 공산당과 당이론가들에 의해 제시된 계급의식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 또 가져야만 한다고 상정되었다. 반면에 다렌도르프(R. Dahrendorf)와 같은 서구의 사회과학자들은 노동계급을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그것에 부여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정태적 구성 요소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톰슨에 있어서는 우선 사회 계급이 구조나 범주가 아니라 실제적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역사적 현상'으로서, 고정된 물체(thing)가 아니라 역동적인 관계(relationship)였다. 따라서 계급은 '사회적 문화적 형성물'인 바, 이는 인간들이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공통의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함을 느끼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자신들의 것과 상이함을 분명히 깨달을 때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계급은 주체인 인간과 구조인 환경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공동결정(co-determination)의 산물이다. 결국 계급은 그들 자신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바, 이것이 계급에 관한 유일한 정의이다. 계급은 그것이 만들어진 만큼이나 그 자신을 만들어 왔다' 라는 것이 사회 계급과 계급형성의 과정에 대한 톰슨의 규정이었다. 종래 마르크스주의 역사 서술에서 거의 도식적으로 해석되었던 것과는 달리, 노동계급의 형성 과정이 역동적 능동적 과정이며, 노동계급은 역사의 물결에 수동적으로 휩쓸리는 '얼굴없는 희생물'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들의 굳건한 전통에 기초하여 역사의 다양한 전개과정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자의식적 사회세력이라는 것이 그의 일관된 지론이었던 것이다.

톰슨 사론의 독특성은 '계급이란 경제적 형성물인 동시에 문화적 형성물이다. 이들을 분리하여 전자의 측면에 이론적 우위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경험, 가치와 같은 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그의 고유한 인식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생산양식이 계급을 결정한다는 점은 공통의 경험에 의하지 않고는 파악되기 어렵다. 사회적 존재에 의한 사회적 의식의 결정은 이같이 공통경험의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라고 밝혔던 그는 가치의 유물론적 검토에 관해서도, 그 필요성과 더불어, 그것이 관념적 명제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삶의 양식, 생산관계 및 가족관계와 같은 문화의 구체적 토양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아니다. 이 점은 자명하다. 경험 자체가 계급적 방식으로 구조화되는 터에 어떻게 가치가 독립적 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로부터 가치가 이데올로기로서 부과된다고 추정한다면, 이는 사회적 문화적 전과정을 잘못해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기든스(A.Giddens)의 표현을 빌리면, '상호의존적 구조화 이론'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 그에 의하면 물질적 요구 못지않게 가치도 항상 모순의 장, 즉 상이한 세계관들 사이의 상호 투쟁의 장이었던 것이다.

삶의 공통경험 내지 가치형성 과정의 한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는 종교 역시 톰슨의, 비록 중립적은 아닐런지 몰라도, 매우 객관적인 검토의 당연한 한 일부였다. 그 자신 감리교 목사의 아들이기도 했던 톰슨은 당시 노동계급의 종교로 대두한 감리교의 영향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으로 감리교는 집단적인 정기 모임과 예배의식을 통해 노동자들의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산업시대의 직업기율을 강조하고, 정치적 보수주의와 과도한 감성주의(emotionalism-방언, 통곡, 울부짖음 등)에 경도됨으로써 반혁명적 심리, 정서적 자학, 정신적 도피 내지 자위 등을 낳는 데 적지않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가 영국 비국교도(non-conformist)의 자유정신을 한 의미깊은 문화적 전통으로 간주했음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비판적 분석은, 오늘의 과제이기도 한, 종교에 대한 역사학적 접근이 어떻게 부정과 맹신이라는 관념적 양극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톰슨을 통해 일별해 본 이른바 문화주의 맑시스트 사가들의 '아래로부터 위로의 역사'는 분명 '입장이 있는 역사(committed history)'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정론적 역사해석을 지양하여 사회계급과 구조 등을 역동적 과정으로 규정하였고, 문화와 가치 심지어 법률과 종교의 개념까지 매우 복합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를테면 이들은 인간 경험의 주체적 능동성 내지 자율성이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점하는 중요성을 인정하는 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다. 톰슨의 저작은 그 이념의 탁월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구사한 방대한 사료, 풍부한 내용, 정교한 분석과 서술 그리고 논점의 창의성 등과 같은 학문적 탁월성을 통해서 충분한 설득력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 그가 역설한 '이론에 대한 사실의 종국적 우위'야말로 전통적 역사주의자들의 신앙 그 자체였다. 그리하여 앤더슨을 비롯한 일련의 구조주의자들이 이에 대해 주의주의(voluntarism) 내지 주관주의(subjectivism)의 함정에 빠질 위험성을 거듭 제기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톰슨류의 역사해석이 함의하는 유연한 이념성과 치밀한 방법론을 근거로, 앞날의 과제일, 이론적 역사학과 실증적 역사학의 생산적인 접목의 한 가능성을 기대한다면 그것이 단지 지나친 기대만일까.

(2) 아날학파의 역사이론

‘정치’와 ‘사건’을 중심으로 했던 전통적 역사학에 대한 현대 역사학계의 반성이 ‘경제’와 ‘구조’를 중심으로하는 마르크스주의 역사해석만을 낳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마르크스주의 사학 못지않게 전후 역사학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회’와 ‘전체’를 자신들의 역사학적 사고와 서술 작업의 핵심적 화두로 삼았던 아날학파의 역사이론이었다. 아날학파와 그들이 표방한 ‘새로운 역사’는 페브르(L.Febvre)와 블로흐(M.Bloch)가 1929년 <사회경제사 연보 (Annales d'Histoire Economique et Sociale)>를 발간하면서 구체적으로 등장하였다. 종전과 더불어 이를 주도하게된 페브르는 1946년 잡지의 이름을 <연보, 경제, 사회, 문명 (Annales, Economies, Societes, Civilisations)>으로 바꾸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역사’란 다름이 아니라 ‘보다 넓고 보다 인간적인 역사’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과당 및 과당적 견해에 봉사하는 역사, 그것이 결코 아니다. 인류의 현재적 요구에 입각하여 과거에 문제를 제기하는 역사, 그렇다,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교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이다. 인간을 (이론으로) 왜소화시키는 역사는 어리석은 역사이다. 아날의 역사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역사이다. 그것의 진정한 이름은 인간사이다.

페브르에 의하면 역사학은 무엇보다도 인간과학(science de l'homme)이었다. 그런데 역사학의 대상인 인간은 결정론의 지배를 받는 단순한 메카니즘이 아닌 동시에, 시간 안에 있는 인간들(des hommes dans le temps)이었으며,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사회 내의 인간 즉 사회적 인간(homme social)이었다. 따라서 역사학의 주된 관심은 개인의 행위나 사상이 아니라 인간들의 조직인 집단 내지 사회인 데, 사회를 연구하는 여타의 사회과학과는 달리 역사학은 이 사회적 인간을 ‘시간 계열 속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는 경제사나 사회사나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완전히 통일된 역사가 있을 뿐이다. 역사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사회적이다’라는 것이 블로흐, 페브르 등의 1세대 아날의 기본적 신조였다. 그리고 이것은 2세대 아날의 대표인 브로델의 ‘역사란 모든 가능한 역사의 종합이다. 역사가의 유일한 잘못은 이같이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역사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을 희생시키며 선택하는 것이다. 역사의 통일성은 마치 인간의 삶이 다양하면서도 또한 하나(une)인 것과 같다’ 등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아날학파의 사론의 가장 특징적인 성격의 하나가 되었다.

‘사회적 인간의 전체사(l'histoire totale)적 재구성’이라는 아날의 학문적 추구는, 흔히 직관주의적 신비주의적 방법론에 의존하는 전체주의자(holist)에게는 물론, 전통적 문헌고증적 역사학계에

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 충격의 정도는 <프랑스 농촌사의 기본 성격>, <봉건사회>, <역사를 위한 변명> 등의 저작에서 드러나는 블로흐 사학의 독특성을 일별하더라도 여실히 짐작된다. 왜냐하면 그는 사료 범주의 획기적인 확대, 회기적 방법(*regressive methode*), 비교사적 이해, 유형적 접근, 토지와 인간의 관계를 통한 경제와 인간관계의 조명, 섬세한 정신과 심리학적 이해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집단기억의 분석을 통한 인간과 인간관계의 재구성, 역사학과 사회과학의 통합, 역사인류학적 방법론의 실천적 제시 등의 비전통적이라 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봉건사회>의 서문에서 스스로 밝힌 대로, '사회의 구조와 그것의 체관계를 분석하고 설명함으로써, 사회 구조의 다원적 체측면을 총체적으로 재생'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단편적이기는 하지마는 그의 몇몇 연구 성과들을 구체적으로 들어 보는 것이 유용할 것 같다. 이를테면 그는 봉건제의 진정한 성격을 가신제와 장원제가 아니라 혈연관계와 가신제라는 특수한 인간관계의 구조화에서 찾았으며, 경제의 하부구조적 기능이란 인간관계의 복합적 성격 가운데 '창백한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밝혔고, 사회 구조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은 경제와 심성에 대한 분석이라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13세기에 이루어진 꿈꾸는 권리의 민주화가 중세의 문학과 예술 그리고 상상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12세기 말엽에 확립된 신학상의 연옥 개념이 13세기 이후 한 사회세력으로 대두하고 있던 고리대금업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본주의가 촉진되었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아마 전통적 역사학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역사학'이었을 것이다.

1956년 페브르의 타계 이후 아날학파를 주도하게 된 인물은 브로델(F.Braudel)이었다. 그는 1세대가 넘겨준 역사학과 사회과학의 협업, 전체사에의 추구, 인간 중심의 역사 등의 지적 패러다임을 한편으로는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동시에 그는 <필립 2세 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 세계>, <물질문명, 경제 및 자본주의> 등의 저작을 통해서 전체사적 역사 서술의 한 전형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테면 아날학파의 역사 이론은 브로델의 작업을 통해서 그 독특한 모습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고 하겠다. 브로델에게 있어서 인간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이라는 데 있었다.

살아 있는 인간이란 있는 그대로의 복합적이며 혼돈된 인간이다. 따라서 이같은 복합적 단일체로서의 인간과 인간 사회에 접근하는 방법은 마땅히 전체적 총체적이어야 한다. 우리에게 완전히 둘러막힌 인간과학이란 없다. 모든 인간과학은 그 하나하나가 저마다 사회의 전체성에 이르는 하나의 문이다. 그것은 모든 방, 모든 층으로 가는 문이다. 우리는 이 모든 문과 모든 계 단을 이용하도록 하자. 역사학은 비단 인간과학들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상에, 적어도 그들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역사가이 인간 과학의 모든 중요 분야와 대화를 나누어야만 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과학의 통합이라는 과업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과업을 통해 서역사학은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어떤 실질적인 공헌을 하게 된다. 요컨대 이제 역사와 사회과학자 사이에 지난 날의 장벽과 차이를 생각하지 말자. 역사를 포함한 모든 인간과학은 상호간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거나, 적어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브로델에 따르면 역사가이야말로 인간과학의 중심으로서 모든 사회과학을 통합하여야 하고 또 통합할 수 있는 보다 총체적인 학문이었다. 얼핏 역사의 제국주의 선언으로 들릴 정도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없지 않았다. 그에 의하면 역사가학만이 근본적으로 시간지속(*la duree*)과 직결된 유일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시간지속이란 시간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차라리 어떤 시간의 단위 내지 어떤 기간 동안 지속되는 시간의 폭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던 그는 이같은 시간지속과 이에 상응하는 역사 서술의 지평을 세 유형으로 대별하였다.

표층에 사건사(*histoire evenementielle*)가 시간상의 단기지속(*la duree courte*) 안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미시적 역사이다. 그리고 좀더 크고 느린 리듬을 따라 움직이는 주기변동의 역사(*histoire conjoncture*)가 있다. 이는 주로 인구, 물질생활, 경제적 주기 등의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이같은 풍중뛰르(주기변동)에 대한 서술 너머에 모든 세기들 전체를 문제삼는 구조사(*histoire structurale*) 또는 장기지속의 역사(*l'histoire du longue duree*)가 있다. 이는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사이의 경계에 자리잡고 있는데,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어서 다른 역사(단기지속 및 풍중뛰르의 역사)들에 비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난다.

브로델에 의하면 전통적 역사학은 개별적이고 극적이며 새로와 보이는 단기지속적인 '짧은 시간(*le temps court*)'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적 고찰에 필요한 '역사의 깊이'를 가지지 못한 연대기 작가와 신문기자들의 시간 단위였다. 그리하여 이들의 정치사나 사건사니 하는 것이 단기지속을 훨씬 넘어서는 시간과 사건의 전체적 연쇄, 즉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기저의 현실 내지 실체와 결부되어 전체사의 일부로 확장되지 않는 한, 그것은 단지 위험한 지적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그는 역사가들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현실을, 사건이나 개인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배경적 부수적 요소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연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다시 그를 인용해 보기로 하자.

역사가들이 사건사에서 벗어나 사회적 현실을 그 자체로서 연구하게 된 것은 금세기 초엽부터의 일이다. 이는 흔히 정치사 대신 경제사와 사회사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접근방법상의 변화 또한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하루 또는 일년 등이 문제인 지난 날의 정치사와는 달리 인구발전, 가격곡선, 임금변동, 이윤율 변화, 화폐유통의 분석, 경기변동 등에 대한 이해는 보다 넓은 시간단위를 요구한다. 이에 10년, 20년 또는 50년의 주기 및 간주기에 관한 새로운 양식의 역사 서술 즉 *퐁종뛰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하나의 사회적 운동은 다른 사회적 운동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하나의 율동적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같은 사회적 운동들의 집합이 바로 *퐁종뛰르*이다. *퐁종뛰르*는 물가, 인구, 임금, 생산성, 정치제도 등과 같이 경제나 정치나 사회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의식활동, 집단정신, 범죄의 증감, 미술의 유파, 문화의 사조 등 제각기 다른 성장과 생활의 리듬을 가진, 문명의 여러 분야에 관련된,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브로델은 역사학이 통합과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퐁종뛰르*의 역사를 통한 사회적 현실에의 추구로부터 마땅히 구조적 접근에 기초한 ‘장기지속의 역사’에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브로델의 구조는 사회구조니 경제구조니 하는 사회과학적 개념과는 달리 무엇보다도 시간지속적 측면에서 규정된 개념이었다. 그에 의하면 ‘구조’란 거의 움직임이 없고, 시간이 쉽사리 소멸시킬 수 없으며, 인간의 삶을 가능케 하고 지탱해 주는 기본 틀인 동시에,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과 역사의 급격한 변화를 저지하는 한계 내지 제약이었다. 일종의 넓은 의미의 사회와 역사의 존재 조건으로서의 하부구조라고나 할까. 아무튼 그는 이 결정적인 역사의 구조를 ‘장기지속(*la longue duree*)’이라 부르고, 지리적 환경, 자연적 조건, 생물학적 현실, 생산성의 일정 한계, 물질생활, 사고 및 행동의 오랜 관습, 샤머니즘 및 습속과 같은 정신적 제약 등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인간이란 언제나 해오던 방식대로 밀을 파종하고, 옥수수를 심으며, 벼논을 고르고, 동식물을 사육하고, 음식을 조리한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경험적이며, 까마득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리하여 인간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일상적 생활의 관례들이 있다’라고 그는 밝히고, 바로 이와같은 것들이 물질문명이라 불리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장기지속 내지 구조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장기지속의 역사는 이러한 구조가 인간의 활동과 삶에 부과하는 모든 제약들에 관한 역사라는 것이다. 아날사학이 의식주 등의 일상적 물질생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며, 개인보다는 집단에, 역사적 인물보다는 무명의 대중에, 위대한 사상보다는 집단 기억 내지 집단 의식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였다고 하겠다.

‘나는 기질적으로 구조주의자이다. 사건들에는 거의 끌리지 않으며, 동일한 표정을 가진 일군

의 사건들 즉 풍종뛰르(주기변동)에는 단지 절반 정도만 끌린다'라는 브로델 자신의 독백은 그의 사론의 진정한 독창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말해 준다. '만약 역사가학이 시간지속 안에서 전개되는 모든 움직임들에 대해 특수한 관심을 가져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장기지속이야말로 여러 사회과학들과 더불어 공동의 관찰과 성찰을 수행하는데 가장 유용한 지평이다. 장기지속은 역사를 현재에 결부시킴으로써 하나의 불분명한 전체를 만들어 내는 유일한 언어이다'라는 것이 그의 신조였다. 복합적 단일체인 '사회적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해명하고자 했던 브로델은, 한편으로는 역사학과 모든 인간과학 특히 사회과학과의 장벽을 허물어 내림으로써,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지속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으로써, 이를 추구하였다. 그에 의하면 통합과학으로서의 역사학 내지 역사학의 전체성은 단기지속인 사건들과 중기지속인 풍종뛰르들이 하부구조인 장기지속의 틀안에서 유기적으로 결부될 때 비로소 이룩되는 무엇이었다.

비록 페브르, 블로흐 등 1세대 아날의 추구가 사회적 질적 종합이었던 데 비해, 브로델의 그것은 물질적 계량적 종합이었다는 특징적 성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사에의 추구는 분명 아날학파의 유서깊은 전통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전통은 흥미롭게도 아날학파 내부의 3세대들에 의해 전체사의 추구가 혹 실현불가능에 가까운 이상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기됨으로써 급속히 흔들리게 되었다. 이 점은 3세대 아날인 푸레(F.Furet)의 지적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전체사적 역사 서술을) 지평선에 있는 목표로 간직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만약 역사가학이 전진하기를 바라다면, 이같은 의도를 출발점으로 삼는 일은 버려야 한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오늘날의 역사 서술은 그 목적을 제한하고, 그 가설을 한정하고, 그 자료를 될 수 있는대로 조심스럽게 구성하고 기술할 때에 비로소 전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젊은 아날들의 견해인 것이다.

푸레의 지적은 70년대 이후 새로운 아날들이 브로델류의 현란한 지적 모색을 사실상 포기하고 자신들의 탐구를 세분된 영역에서 보다 전문화 특수화하게 된 경위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아마도 경제사 연구의 퇴조와 더불어 작금의 아날학파가 이룩한 가장 두드러진 연구 동향은 심성사(l'histoire des mentalites)의 진전일 것이다. 60년대의 망드루(R.Mandrou) 이래로 심성사 영역은 아리아스(P.Aries), 뒤비(G.Duby), 르 고프(L.Goff), 보벨(M.Vovelle) 등을 거치면서, 지식의 역사, 감성의 역사, 사회성(la sociabilite)과 그 제도의 역사, 종교적 정치적 상징체계의 역사 등으로 분화하고 심화되었다. 그밖에도 아굴롱(M.Agulhon) 등에 의한 정치사의 복권, 쇼뉴(P.Chauu)에 의한 계열사(histoire serielle), 르 라뒤리(Le Roy Ladurie)의 역사인구학적 신멜더스주의, 르 고프의 문화인류학적 문화사 등과 같이 아날학파는 역사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데 의미 깊은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남는 것 같다. 아날학파에 대한 오랜 비판 즉 이들의 역사이

론이 인식론적 전환이 아니라 방법론적 전환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이미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문제는 이들의 방법론이 단순한 절충주의가 아니라 '시간의 지속'과 '사건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 내는 유용한 도구인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데 있다. 사실 아날학파의 주된 관심과 성과는 변화가 거의 없거나 매우 완만한 18세기 이전 사회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하여 '지속과 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이들의 방법론이 19세기 이후 산업사회가 겪은 급격한 '변화와 이에 수반된 문제들'에 관해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게 한다. 다시 말해서 '지속과 변화의 변증법'에 관한 아날 사학의 '이론'이 과연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여전히 미결의 장이라는 말이다. '아날의 역사학이야말로 오늘날 어느 역사가 집단보다도 훌륭한 과학적 역사의 모델이 되고있다' 라고 밝히면서도, 이에 덧붙여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사회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을 결여하고 있다'라고 한 이거스(G.Iggers)의 지적이 설득력을 가지는 근거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단 이것이 아날학파만의 비극은 정녕 아닐 것 같다. 사실 '장기지속'의 역사가였던 브로델의 중국적 관심도 '변화'에 있지 않았던가. 따라서 '지속과 구조'에 대한 정교한 계량적 분석에 입각하는 아날 사학의 중국적 목표도 '움직임이 없는 역사(l'histoire immobile)' 그 자체일 수는 없다. 오늘날 아날학파의 과제로 왕왕 지적되고 있는, '지속과 변화의 변증법에 관한 체계적 이론', 어쩌면 그것은 현대 역사학계 전체가 나누어져야 할 운명 바로 그것이 아닐까.

3. 반성과 전망

현대 역사학 특히 전후의 그것은 전통적 역사주의 사학에 대한 위기감을 그 지적 토양으로 한 것이었다. 역사주의 역사 서술이 과거에 대한 비판없는 경건을 조장하고 국가주의적 지평에 함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역사주의의 전통 즉 과거 사실의 객관성에 대한 일차원적 인식 및 사건중심적 정치사예의 극복을 추구하게 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 과학적 역사학의 절대적 기초일 수 밖에 없는 '사실의 객관성' 그 자체에 대해 비코(G.Vico) 이래로 제기되어 온 인식론적 문제의식은 베어드류의 상대주의를 거쳐 오늘날 화이트(H.White)류의 해체주의에 이르기까지 나름의 지적 전통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역사학의 현재성과 비판성을 강조하고 문화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을 설득하는 등 의미있는 기여를 하였다. 단지 해체주의자들에 의해 제시된 '사실의 허구성' 내지 '역사의 상상력' 등이 직업적 역사학자들에 대한 보완적 비판을 넘어 독자적인 생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이론에 입각한 보다 많은 구체적

성과들이 요구되는 바, 이는 앞날의 일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사건과 정치중심의 역사주의적 역사 서술에 관한 한, 이에 대한 비판을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역사해석과 아날학파의 역사이론으로 대별해서 검토하였다. 먼저 경제결정론적 마르크스주의 역사해석은 오늘날 현실 사회주의 체제의 와해와 더불어 그 설득력을 더욱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입장’을 가지면서도 거시적 이론과 실증적 역사를 접목시킴으로써, 구조의 다양성과 그 탄력적 결정성을 제시하고자 했던 앤더슨류의 시도는 여전히 의미가 없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지금까지 거의 간과되어 온 민중집단의 정치적 능동주의 내지 그 자율성에 대한 첨예한 인식을 토대로 주체인 인간과 구조적 상황 간의 공동결정에 의한 사회 변동의 역동적 전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톰슨류의 추구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처럼 정치와 사건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해석의 대안이 경제와 구조였다면, 아날학파가 찾은 대안은 사회와 전체였다. 인간을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일부로 그리고 시간 안에 있는 존재로 간주했던 아날학파에게는, 시간지속의 구조를 가지는 사회야말로 ‘보다 인간적인 학문’ 내지 ‘인간과학의 중심으로서의 역사학’의 당연한 토대였다. 따라서 아날학파의 역사학적 과제는 제사회과학과의 모든 장벽을 허물어 내리고, 이를 다시 단기, 풍중뒀르, 장기라는 세 유형의 시간들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복합적 단일체인 인간의 삶을 총체적 전체적으로 조명해내는 작업이었다. 오늘날 전체사의 구축이라는 브로델류의 현란한 시도는 이미 포기된 신화의 일부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날의 간학문적 학풍은 인간의 삶과 일상적 사회생활에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들을 다양하게 계량화함으로써 극히 세분된 역사학의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하는데 기여하였다. 아날의 성공적인 간학문적 세분화가 역설적이게도 아날학파의 소멸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이다.

사실 앞으로의 역사학에 대한 세밀한 전망은 필자의 능력밖의 일이다. 여기서는 두 학문 전통에 대한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제기된 약간의 반성을 간략히 지적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하겠다. 그런데 필자가 현대 특히 전후 역사학계의 동향을 마르크스주의 사론과 아날학파를 중심으로 검토한 데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다. 그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직업적 역사가의 다수가 역사주의 이래로 유서깊은 전통이 되어 온, 사건과 엘리트 등에 대한 개성기술적 서술사(narrative history)의 학문 전통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이 점을 처음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단지 한 가지 있다면, 이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역사학의 당연한 출발점이 될 마르크스주의 사론과 아날학파에 대한 현재적 반성도 기실 그것이 서술사적 학문 전통에 비추어 이해될 때 비로소 앞으로의 전망을 위한 어느정도의 토대나마 갖추는 셈이 되는 것이다.

앞서 필자는 전후 마르크스주의적 역사해석의 흐름들 가운데 몇몇 의미있는 시도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예들조차 '마르크스의 결정론적 역사해석의 틀 가운데 대부분의 것은 오늘날 근본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아무런 결정론적 요소도 가지지 않는 마르크스주의 역사는 사실상 무가치한 것이다'라는 원론적 반성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렵다. 또한 지난 한 세대를 풍미한 아날류의 사회사 역시 '구조적인 해석 및 인류학적 생태학적 고고학적 탐사 등에 지나치게 경도됨으로써, 역사의 과정 자체를 암묵적으로 부정하거나 또는 시간의 지평을 왜곡하고 있다. 이들은 인간적 정치적 체계기를 거의 무시하며,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생산과 권력 그리고 착취의 체관계가 가지는 중심적 규정력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생득적 한계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필자는 이같은 반성과 한계가 마르크스주의 역사해석은 물론 아날학파의 역사이론 역시 퇴조하고 있는 역사학계의 작금의 실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들 두 역사해석에는 각각 자기모순적인 측면이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었다. 모든 결정론적 요소를 배제한 역사이론이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우며, 또한 시간지속의 사회사가 변화와 그 의미조차 담아내는 '보다 인간적인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구호로서의 '새로운 역사'가 아니라 작업들로서의 '새로운 이론'이 불가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의 실험이, 반드시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결코 무익한 것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앞날의 역사학이 사건의 일회성 내지 그 연대기적 논리에 함몰하여 사건들 간의 실제적 관계 및 이를 움직이는 구조적 체계의 문제는 도외시한 채, 사건기술적 서술을 곧 역사학적 해명으로 간주하는 신실증주의에로 광범위하게 경도되리라고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체적 자율'과 '구조적 결정'이 교차하는, 복합적이며 혼돈된 인간이 역사학의 영원한 주제임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인간없는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론없는 역사학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론의 깊이와 내용일 것이다. 인간의 자율성과 구조의 결정력을 탄력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이론, 다시 말해서 자유에 관한 이야기와 구조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담아내는 역사가 앞날의 과제인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인간들의 삶이라는 무한의 영토에서 발굴해 낸 모든 정보들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총체적인 인간의 이야기로 재구성해 보려는 '종합적 서술사'에의 추구 경향은 의미깊은 모색의 하나일 성싶다. 아니 어쩌면 '인간들의 삶에 대한 총체적 해명'이란, 브로델의 말대로, '불가능한 이상'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이상'에의 추구가말로 포기할 수 없는 역사학의 학문 정신 바로 그것이다.